



온양문화원 원장
김 시 겐

지역문화 발전에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시겸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제 우리 고장은 유서깊은 온천문화의 발상지로서 찬란한 향토문화를 꽃피우고 충청인의 진취적인 기상과 충효정신을 면면히 이어온 온양, 아산은 우리의 복된 삶의 터전이 될것이다”라며 이에 우리들은 자랑스런 문화시민임을 자부하면서 우리지역을 풍요롭고 희망 가득한 일류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한편 온양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다 함께 뜻을 같이 하여 문화원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김원장은 금번 “온양문화원 여성발전연구소”를 개설했으며, 이날 발족한 “여성발전 연구소”는 아산시 문화 창달을 위해 앞으로 문화 예술 봉사 등에 참가, 다양한 문화 활동을 가질 예정이며 온양문화원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문화의 가치와 즐거움을 우리시민 모두가 향유 할 수 있도록 중간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저희 문화원에서 앞장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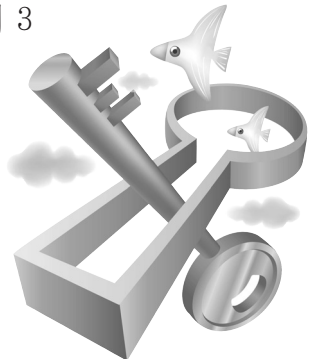
온양문화원은 시민의 문화 사랑방으로 항시 개방하고 있으며 특히 다도 및 생활예절, 생활염색 및 천연염색, 서예, 밥로스 미술교실, 독서, 논술 등 다양한 문화학교 강좌를 년중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시의 큰 행사인 제46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행사를 시행하였으나, 미비한 점 또한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노력하여 제47회 성웅이순신축제 행사는 시민들의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분산된 각종 예술제인 설화예술제, 맹정승축제, 온궁행렬재연 등 나눠져 있는 축제를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온양문화원에서는, 매 분기마다 아산타이딩(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대중화사업에 선정되어 아산 어금니 바위 외 3가지 구비문화를 만화 및 동화책으로 하반기 중에 발행하여 각 학교 및 공공 기관등에 보급 배부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전통문화 보존과 전파 및 계승은 물론 그 외의 기타 문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6회 아산성웅 이순신축제

이 모 저 모

길놀이<거리퍼레이드>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행사로 아산 시내를 임진년(1592년) 조일전쟁 상황으로 재연한다. 행사일 오후 4시 아산고등학교에서 출발한 거리 퍼레이드는 온양역을 거쳐 시내 주요도로를 경유 국교천주 행사장에 이르는 4.6Km를 두 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길놀이 행렬은 시민과 기관단체 학생 700여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금년에는 거북선과 판옥선 모형을 등장시켜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거북선 및 판옥선모형까지 출정시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온궁풍물패를 비롯한, 온양2동.3동 풍물패의 뒤를 따라 외국인들로 구성된 풍물패도 등장. 한껏 분위기를 무르익히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행사 저변확대의 일환으로 주변을 전통 거리화시켜 당시의 생활모습을 반영한 저자거리 모습을 재현하며 많은 시민들의 향취를 고취시키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여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조선시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전통거리를 조성해 시대의 흐름 속에 조상의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전통 놀이문화를 통해 직접 체험 하면서 조상들의 슬기를 즐길 수 있도록 제공됐다.

- 살거리(대장간, 옹기전, 악기전, 주물전, 짚공예전, 목물전, 한양방, 포목전, 방울장수, 고서전, 점집, 잡화점등)
- 먹거리(순두부, 떡집, 물장수, 엿장수등)
- 놀거리(소원지꽃이, 떡메치기, 어린이 맷돌체험, 솟대만들기, 장승깎기, 짚풀공예체험, 호패만들기, 황토염색, 도자기 만들기등)
- 볼거리(포졸순라, 장터사람들) 등의 주제로 나뉘어 제공되었다.

현충사



조·일전쟁 당시 복장을 한 사람이 움직임이 없는 판토마임을 연출하면서 행사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현충사 내에서 이순신장군, 군관 나대용, 수군, 왜장, 왜군등의 모습으로 서 있으며, 기념촬영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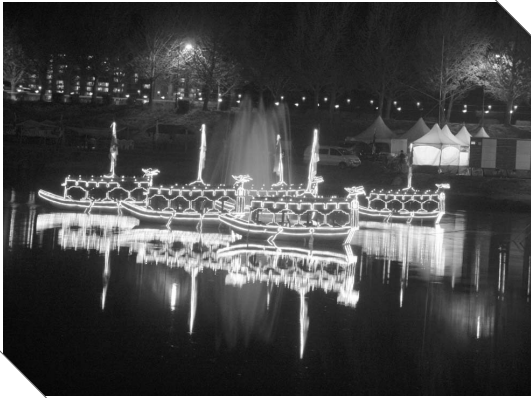


주제전시관

축제의 주제는 이순신 장군이고, 이순신 장군하면 상징처럼 떠오르는 주제는 거북선이므로 주제를 살려 축제의 전시기능과 교육기능, 정보제공 기능을 함축한 테마전시관이 운영되었다.

1구역 ~ 9구역으로 나눠 운영되며 구역별 각각 이순신관, 거북선관, 임진왜란 3대 대첩관, 임진왜란 4대 해전관, 23전23승관, 세계4대 해전관, 세계 모형배 전시관, 조선시대 무기전시관, 이순신 영상관 및 체험관 운영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사용했던 거북선과 판옥선을 전시하고, 거북선과 일본배를 비교할 수 있는 공간과 거북선을 직접 타 보고 노를 젓는 체험, 해군이 제작한 충무공 이순신 영상,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이순신, 게임관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여기에는 전문의 해설 도우미를 배치해 내용 설명, 교육용 홍보물을 비치 운영하였다.



부교를 건너면서 야시장과 부교 주위의 거북선 모형, 멀리 은행나무 거리의 청사초롱 불빛 등이 조화를 이뤄 무척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하였다. 멀리서 온 관광객들은 못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연신 탄성을 자아내며 손을 추켜세웠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일 인기가 쇄도하였다. 이렇듯 관광객 지향형 축제구성을 통한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특히 관광객 입장에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호응은 매우 좋았다.



폐막식의 하이라이트인 강강수월래를 시작으로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시민모두가 동참해 축포와 함께 오색꽃종이가 흩날리는 가운데 참석자 모두가 어깨를 걸고 어깨춤을 추며 흥에 겨워 오랫동안 행사장을 머물면서 축제를 함께 즐겼으며, 보다 나은 제47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를 기약하였다.

2007 문화탐방 소식

광릉수목원



4월 장소 : 경기도

국립수목원이 위치하고 있는 광릉숲은 1468년 조선조 제7대 세조대왕 능림으로 지정되어 500여년간 엄격히 보호 관리되어온 국내 최고의 산림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산정호수는 명성산을 비롯하여, 10만평의 억새꽃밭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진주 논개제



5월 장소 : 경상남도

진주에서는 논개의 충절정신과 진주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문화를 토대로 한 새로운 지역축제로 논개제를 매년 행사하고 있다. 그 주변에는 국립진주박물관, 축석루, 호국사, 서장대, 의기사, 등 유명한 관광명소가 많다.

경기도 와우정사



6월 장소 : 경기도

우리국민의 호국정신에 성지인 '와우정사'는 우리민족의 염원인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기 위하여 실향민인 김해근 삼장법사께서 창건한 사찰입니다. 주변에는 우리랜드, 세종 옛돌 박물관 등 많은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지방간, 적게 먹고 운동해야...”

온양문화원 부원장 김은숙

정상적인 간에는 전체 중량의 5%에 해당하는 지방이 함유돼 있다. 이 보다 많은 지방이 침착된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한다. 최근 우리의 식생활이 윤택해지고 서구화하면서 지방간 환자가 늘고 있다.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건강진단을 받은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약 30%, 성인여성의 약 15%에서 지방간이 발견됐다.

지방간의 원인은 다양하나 가장 흔한 것은 음주와 비만이다. 지방간 환자는 대부분 과음 습관이 있거나 비만이 관찰되며, 두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도 흔하다.

혈액내의 지방질 함량이 많은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부신피질호르몬 또는 여성호르몬 등의 약제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과음을 계속하면 지방간이 생기고, 나아가 알코올성 간염·간경변증으로 발전한다. 지방간은 알코올성 간질환 중 가장 흔한 유형이다.

매일 20~40g 정도의 알코올(소주 1홀 또는 맥주 1,000cc미만)을 며칠만 마셔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 알코올은 간에서 주관하는 지방질의 대사를 방해하므로 간에 기름이 끼고 붓게 된다. 이른바 애주가라고 자처하는 주당들의 과반수 정도가 지방간을 갖고 있다. 간밤에 양주 한 병을 비우고도 끄떡없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말 못하는 간 이 속으로 골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대개 증상이 없다. 있더라도 가슴 밑에 무엇인가 매달려 있는 것같은 불쾌감 정도이다. 신체검사나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서 검진받다가 발견되는 수가 많다. 신체검사 때 초음파검사를 하면 지방간은 쉽게 발견된다.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은 대부분 간이 부어 있다. 간기능 검사는 정상으로 나오는 수가 많지만 염증수치가 약간 상승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간조직 검사를 통해 만성간염과 구별해야 한다. 지방간은 간염이나 간경변과는 달리 간세포가 파괴되거나 섬유화로 간이 굳어진 것이 아니고 단지 간세포내에 지방이 축적된 상태이다. 따라서 원인을 제거하면 쉽게 정상으로 회복된다. 간세포내에 침착된 지방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데는 3~6주가 걸린다.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비만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간염 환자는 안정을 취하고 잘 먹어야 하지만, 지방간인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매일 몇시간씩 땀이 흥뻑 젖을 정도로 하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식사량도 줄여야 한다. 포만감이 오기 전에 수저를 놓는 게 바람직하다. 당분이 많은 음료나 스낵류도 멀리 해야 한다.

휴일에 집안에 눌러 앉아 군것질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좋지 않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자신의 노력 정도에 따라 완치여부가 결정된다. 무절제한 생활양식을 버리고 건강을 되찾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게 중요하다.

지방간에 좋은 식품

1. 단백질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이 적은 단백질식품. 즉 연어, 가다랭이, 가자미, 넙치, 계란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제한) 닭가슴살, 두부, 우유, 요구르트 등이 좋다.
2. 간장애가 있는 사람은 비타민의 저장, 활용이 충분히 되지 않으며 칼슘이나 철분도 일반식사에서 부족한 경향이 있으므로 케일이나 신선초 등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야채를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
3. 알코올성 간장애의 지방간은 고지혈증에서 기인한 것이 많으므로 양질의 단백질과 지질용해 작용을 하는 음식들을 먹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4. 마늘을 중탕해서 드시거나 다스거나 채첩을 달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채식을 하도록 노력하고 녹즙 같은 것을 충분히 드셔도 좋다.

아산이여, 영원하라

시 / 김환주

무엇이 이토록 새롭게 보이는지!
진 터널 속에 잠자던 아산이
무엇에 놀라 화들짝 깨었는가!

그토록 오랜 잠에서 깨어나
드넓은 푸른 창공에 나래를 펼친다

울망줄망
고기 잡고 미역 감던 아산의 젓줄 곡교천이
생태공원으로 새로이 단장하고

막걸리 한잔에 김치 한쪽
그저 그렇게 만족했던 동쪽 전답속의 군상들

잠자던 숲속의 탕정이
세계처단 LCD로 장영실의 과학혼을 꽃피운다

충무월이 숨쉬는 서해의 증추도시 아산이여!
문예회관 건립으로 예술혼 꽃피우고
청소년 회관으로 미래희망 꽃피운다.
청백리 유서어린 맹씨행단 향하는 길
그 옛날 전설에 호랑이 출몰하던 청댕이 고개
스포츠 정신으로 끊임없이 울려 퍼질
청년 공설운동장의 함성소리
아산을 일깨운다.

드높게 솟구친 시련과 영광의 탑
서들광문 맑은 쌀로
인재가 육성되고 농촌이 춤을 추고

홀대 받던 소각장은
주민복지 꿈 키우고

전철의 새바람 아산에 불어오면
흥청이는 재래시장 온양상권 춤을 춘다

청정의 광덕산에 옥수같은 강당계곡
천년의 세월속에 역사가 숨을 쉬는
외암리 민속마을

유구의 솟구치는 온천의 사랑수는
천혜의 축복이요 아산의 자랑이라

바다내음 물씬 안은 삼교호 호반도로
비너스 미의 화신
조각으로 내력앓은 신청호에
천사들의 고운 선율
푸르른 음악당에 울려 퍼진다

꽃으로 둘러싸인 도고의 웅기마을
초사에 자리잡은 늙름한 경찰학교
호연지기 가다듬는 말발굽 소리로
천년의 문화유산 오늘에 꽃피우자
경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이 하나 된 우리아산

아산의 시민들이여!
아산의 젊은이들이여!
우리의 삶의 터전인 아산을
우리 후손들의 삶의 터전인 아산을
드높게, 드넓게 펼쳐나갈 아산의 미래를
그대와 내가, 우리가
영원히 꽃 피우리



장영실은 조선 전기 세종 때의 과학자로 본관은 아산이며 기녀 소생으로 동래현의 관노 출신이다. 과학적 재능이 있어 제련·축성·농기구·무기 등의 수리에 뛰어나서 1423년(세종5)왕의 특명으로 발탁, 상의원 별좌가 되면서 노예의 신분을 벗었다.

그 후 행사 직이 되고 1432년 중추원사 이천을 도와 간의대 제작에 착수하고 각종 천문의 제작을 감독하였다. 1433년 호군에 오르고 혼천의 제작에 착수하여 1년 만에 완성하고 이듬해 동활자인 경자자의 결함 보완한 금속활자 갑인자의 주조를 지휘·감독하였으며, 한국 최초의 물시계인 보루각의 자격루를 만들었다.

1437년부터 6년 동안 천체관측용 대·소간의, 휴대용 해시계 현주일구와 천평일구, 고정된 정남일구, 양부일구, 주야 겸용의 일성정시의, 태양의 고도와 출몰을 측정하는 규표(圭表), 자격루의 일종인 함경각의 옥루를 제작 완성하고 경상도 채방별감이 되어서 구리·철의 채광·제련을 감독하였다. 1441년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측우기와 수표를 발명하여 하천의 범람을 미리 알 수 있게 했다. 그 공으로 상호군에 특진되었으나 이듬해 그가 감독 제작한 왕의 가마가 부서져 불경죄로 의금부에 잡혀가 장형을 받고 파직 당하였다.

장영실이 동래현 관노로 있던 시절의 “일화”

일을 마치고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틈틈이 병기 창고에 들어가 녹슬고 망가진 병장기와 공구들을 말끔히 정비하여 현감의 신임을 얻었다. 누구라도 고달픈 노비 생활을 하다보면 틈이 날때마다 편히 쉬고 싶게 마련이다.

그러나 장영실은 스스로 일을 찾아 그것마저도 완벽하게 해냈던 것이다.

이러한 장영실의 행동은 장래를 위해 계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신분의 벽이 단단하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일 자체가 좋아 스스로 일을 찾아다닌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능력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자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성공도 찾아온 것이다.



아산시 신인동 갓쓴바위



신인동에 있는 갓바위에 얽힌 전설이다. 옛날 이 동네에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부부가 살았다고 한다. 특히 그 부부는 아내는 남편을 잘 시중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잘 위해 주어 그 마을에선 금술이 좋은 부부로 평판이 나 있었다. 다만 그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그 부부는 가난한 살림이나마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아주 잘 살게 되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니까 낭비하는 것도 늘고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다.

또 잘 살게 되었는데도 밭에 나아가 손수 일하고 길쌈질을 하는 아내가 웬지 불만스럽게 생각됐다. 그는 화김에 동네에서 좀 떨어진 어느 주막에 가 술을 마셨다. 그 주막엔 예쁜 여자가 한명 있었는데 그 여자는 욕심이 많고 샘이 많은 간교한 여자였다.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온 것을 보고 술을 마시고 있는 그의 불만을 꿰뚫어보고 이제는 잘살게 된 그의 재산이 탐나서 그의 곁에가 아이를 낳아 주겠다고 꾀었다. 남편은 그의 부인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다가 부인보다 예쁘고 또 아들을 낳아준다고 하여 그만 그녀의 꾀에 빠져 버렸다. 차츰 그는 외박하는 수가 늘어났고 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해 버렸다. 주막에 있는 여자는 어느새 아들을 낳았다.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해서 그 남편의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매일 졸라댔다.

한편 그의 아내는 그와 같은 소문을 듣고 화내기는 커녕 남편에게 그 여자와 아이를 집에 데려와 같이 살자고 했다. 그리하여 본부인과 작은 부인은 한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본부인은 화를 내지 않고 그 아들을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잘 대해 주었다. 한데 작은 부인은 그래도 욕심이 차지 않아 매일매일 자꾸만 그 남편을 졸랐다. 멀리 도망가자고……. 그 남편은 처음엔 자기 부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안된다고 했지만 차츰 그 여인의 꾀에 빠져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느 날 그 둘이 계획한 일을 실행하기 위해 남편은 보약이라고 해서 본부인을 위해 지어 왔는데 그 속엔 독약이 들어 있었다. 어느 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던 작은 부인은 손수 그녀가 약을 끓여서 본부인에게 갖다 주었다. 본부인은 그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그 약을 모두 마셨다. 약을 먹은 것을 확인하고 그 남편과 작은 부인은 새벽이 되면 탄로가 날 것 같아 집에 있는 재물을 챙겨서 아이와 남편과 함께 도망을 쳤다. 그들이 마을 입구를 벗어나려 할 때 갑자기 조용했던 하늘이 번개와 천둥을 치면서 그들 셋에게 몰려와 그 자리에서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남편은 갓쓴 채 그대로 돌이 되어 갓바위라고 한다.

하나로 통합된 축제에 대해서...

아산에서 벌어지는 가을 축제중 설화예술제, 맹정승축제, 온궁행렬재연등 3대축제를 통합하였습니다. 축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설화예술제

순수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품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맹정승 축제

조선조 세종때의 명재상인 고불 맹사성의 청백리정신과 업적을 재조명하여 후세에 바르게 전승하고 전통문화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온궁행렬재연

예로부터 온양온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역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을 비롯한 여러 임금님들의 휴양 및 병 치료를 위하여 온궁으로 행차 하셨다.

역사적으로 소중한 온궁행렬을 재연함으로써 아산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나로 통합된 축제기간은 **10월 11일(목) ~ 10월 14일(일) 4일간**입니다.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 중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 드립니다.

문화학교 운영 수강생 모집



다도 및 생활예절

다도의 정의

다도(茶道)란 차를 마시는 멋과 더불어 인간의 건전한 삶의 길을 걷자는 것을 말함이다.

차는 처음에 약용으로 사용되었을 만큼 기호 음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보건음료로서 효과가 큰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차는 우리 인간들이 건전한 삶의 길을 걷는데 있어 가장 소중한 몸을 튼튼히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귀중한 기호음료이다. 뿐만 아니라 차를 끓이고 마시며 대접하는데 있어 따르는 정성과 예의범절 및 청정하고 고요한 분위기 등에서 알뜰한 각성의 생활을 체득(體得)하게 된다.

즉, 다도는 우리 인간들의 정신면에 있어 사심 없는 맑고 깨끗한 마음씨를 기르고 나아가 봉사하고 일하는 실천력을 기르고 이를 통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다같이 한없는 기쁨 속에 깨달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강좌요일 : 매주 화요일

♣강좌시간 : 오전 10시



생활염색

염색의 정의

천연에 존재하는 염색의 재료를 사용하여 염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연 염색에 사용되는 천연 염료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염료로 나뉘어져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염료의 기원에 의해 분류되는 것이며 그 밖에도 화학 구조에 의한 분류, 그리고 색조에 의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천연염료는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꽃등의 식물성 염료, 코치닐, 케르메스, 티리안 퍼플 등과 같이 동물의 몸이나 그 분비물로부터 색소를 얻을 수 있는 동물성 염료와 다양한 색채를 갖고 있는 흙과 돌 속에 함유된 금속산화물, 즉 무기안료에 의한 착색을 이용할 수 있는 광물성 염료 등이 있다.

이러한 천연염료 염색에는 필요로 하는 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식물 또는 동물을 주로 물로 끓여 얻은 염액을 사용하여 염색을 한다.

♣강좌요일 : 매주 금요일

♣강좌시간 : 오전 10시





밥로스 미술교실

밥로스의 정의

현재 TV ART 쇼를 통해 지금까지도 방영되고 있는 밥로스미술은 초보자도 쉽게 답을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환상적인 기법으로 한국은 물론 전세계 TV를 통해 최장수 미술프로그램입니다. 동물과 자연을 사랑하는 애호가였던 밥로스는 간암으로 투병하여 생을 마감할때까지도 변함없이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가르치며 더 많은 그림을 그리고 백만권의 서적을 기록 하였습니다.

1995년 6월 4일 그의 집에서 조용히 삶을 마감하기까지의 미술계의 그의 업적과 전세계인은 그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밥로스 재단을 설립하여 오늘날까지도 그의 자연 애호 주의와 창조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좌요일 : 매주 월, 목요일

♣강좌시간 : 오후 4~7시



서예교실

서예의 정의

서예는 문자를 표현한 독특한 예술이다. 특히 모필을 사용하여 문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문자를 기록한다는 서사적 기능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서예는 실용가치 뿐 아니라 예술적 행위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글씨쓰기 행위와 다르며, 문자디자인과도 구별된다.

반드시 모필을 사용하여야 하고, 글자간의 구도와 행간의 구도인 장법을 강구해야 하며, 먹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사용 하였을때 비로소 서예라고 할 수 있다.

♣강좌요일 : 매주 월, 목요일

♣강좌시간 : 오후 7시 ~ 9시



“여름철의 집안의 악취 제거”

날씨가 무덥고 습한 계절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집안 청결에 더욱 신경 써야 하지요. 구석구석 소홀해지기 쉬운 곳에서 나는 악취들을 몰아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싱크대에서 나는 냄새

싱크대와 식기장은 그릇, 식료품, 조미료 병 등을 넣어 두기 때문에 음식 냄새가 배어 공기를 혼탁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소독제를 푼 물에 스펀지를 적셔 싱크대와 식기장을 깨끗이 닦고 마른 걸레로 물기를 완전히 없앤 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문을 활짝 열어 선풍기 바람을 쐬어 주면 습기도 없앨 수 있고 통풍도 잘돼 냄새가 깨끗하게 없어진다.

쓰레기 냄새

쓰레기봉투에 쓰레기가 꽉 차지 않았는데도 악취가 진동하는 경우가 여름철에는 빈번하다. 종량제 실시로 그냥 버리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집안에 풍기는 불쾌한 냄새를 마냥 견디기도 힘든 상황. 이럴 때는 신문지를 물에 적셔 냄새나는 쓰레기를 덮어두면 신문지가 냄새를 빨아들여 악취가 제거된다. 그냥 물보다 식초를 약간 떨어뜨려도 좋고 물과 알코올을 3:1로 섞어 분사하면 효과는 배가된다. 또한 쓰레기 봉투에 커피 가루나 녹차잎 같은 것을 넣어 두면 한결 더 좋다. 그러나 냄새가 난다고 방향제나 향수를 뿌리는 것은 금물! 더 심한 악취가 생기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을 부르는 요인이기도 하다.

집안에 뱀 담배 냄새

집안 곳곳에 담배 냄새가 배어 있을 경우엔 청소하기 전에 커피 찌꺼기를 여기저기 뿌린 다음 조금 후에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은은한 커피 향이 방안에 퍼지면서 담배 냄새가 사라진다. 또한 커피 찌꺼기를 잘 말려서 재떨이 안에 넣어 두면 더 이상 담배 냄새가 나지 않는다.

| 건강상식 |

“우리 몸의 활성 산소를 없애주는 칼라 푸드”

① 빨강: 딸기, 토마토, 사과, 고추, 파프리카 등

빨강색을 내는 리코펜, 인토시아닌, 폴리페놀 등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간소시켜 싱그러운 활기와 젊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② 주황: 당근, 오렌지, 귤 등

주황색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 베타카로틴은 몸에 흡수되면 일부는 비타민A로 바뀌어 식욕을 촉진하고 신체발육을 돕고 면역력을 강하게 된다.

③ 노랑: 바나나, 콩, 콩나물 등

노란색 식품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카로티노이드, 비타민C,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④ 초록: 시금치, 녹차, 열무, 풋고추, 브로콜리 등

생명력을 뜻하는 초록색 식품에는 무기질과 비타민, 폴리페놀 등이 함유되어 있어 젊음을 유지하고 활력이 넘치게 해 준다.

⑤ 하얀: 양파, 마늘, 무 등

흰색, 또는 담황색을 만드는 것은 플라노보이드 계열의 안토크산틴이다. 안토크산틴이 들어있는 풍부한 음식은 폐나 기관지가 약한 사람에게 특히 좋고 체내에서 활성산소의 부작용을 억제하는 항산화력을 키워준다.



아산신도시 분당보다 커진다

아산신도시 2단계지구 규모가 26만평 늘어나 536만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단계 지구 111만평까지 합해 647만평(2,139만m²)으로 커진다. 지난 5월 22일 신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탕정산업단지 아래쪽 26만평을 추가 편입하고 산업단지와 연계한 연구개발(R&D)단지를 조성한다. 이로써 분당(594만평) 평택(528만평) 파주(499만평)등과 비교하면 신도시 가운데 면적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로 개발된다. 아울러, 인구밀도도 ha당 93명으로 높여, 1단계 8,000가구를 포함하면 총 6만 3,000가구 수용인구 20만명에 달해 명실공히 중부권 대표도시로 개발된다.



물 문제 확실하게 해결

지난 5월9일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을 준공하여 영인, 인주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을 시작하였고, 2006년 10월 선장, 도고, 신창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에 착공했다.

그동안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영인, 인주지역은 충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되었으며, 서부지역 상수도공급 사업은 국기 40억원 포함, 총 50억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완공, 오는 2009년부터 공급을 시작하여 물 문제를 완전 해결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100% 주민이 부담하던 지선관로매설 공사비를 조례를 개정하여 21만원씩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교육인적자원부)

2006. 7. 26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하는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어 교육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씻고 교육선진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했다. 시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든 평생동안 학습할 수 있는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21C 지식기반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과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삶의 질의 높은 명품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평생학습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사 채용과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센터를 2008년까지 건립한다.



글로벌 인재양성의 큰 길 개척

미국 미시간주 랜싱시와 East랜싱시는 10월 13일을 (아산시의 날)로 선포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며, 교육분야 상호교류와 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영어권 외국연수의 비효율성과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보다 효과적인 연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시간주립대학 등 미국내 명문대학 진학의 길을 개척함으로써 21C 글로벌 인재양성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났다. 이제 아산은 국제화교육특구를 준비한다. 특구지역은 60만평으로 국도비 300억원 포함 606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특구지정 후 국제학교도 설립하게 된다.

우리지역 인사소식

【아산시청】

발령부서(직위)	직 급	성 명	현부서	비 고
총무과(공로연수 파견)	지방서기관	조중혁	의회사무국장	
총무과(공로연수 파견)	지방행정주사	유재동	도고면	
총무과(공로연수 파견)	지방행정주사	이덕성	신도시조성과	
총무과(공로연수 파견)	지방행정주사	조문기	탕정면	
총무과(공로연수 파견)	기능6급 지방사무원	황석순	국민생활관	
총무과(공로연수 파견)	기능8급 지방운전원	김의정	인주면	
총무과(공로연수 파견)	기능8급 지방운전원	김입배	둔포면	
총무과(공로연수 파견)	지방농촌지도사	구자웅	농업기술센터	
산학관협력관(호서대 파견)	지방서기관	정영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사무국장	지방서기관	맹억호	회계과장	승진
주민생활지원국장	지방행정사무관	남덕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세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연우	온양6동장	
회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노웅	청소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인범	도고면장	
여성가족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유선열	여성가족과장	승진
환경보호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복구	송악면장	
청소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장석동	환경보호과장	
송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영식	문화관광과	
도고면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일규	기획예산담당관실	
온양6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용식	세무과장	

【봉사단체】

3620지구 이 · 취임

총재	양재우 → 서광원
온양RC	김응규 → 조국형
새온양RC	배선길 → 황인호
온아RC	전용석 → 현만섭
아산RC	김태준 → 김달중
온양목련RC	김영화 → 백연분
온양중앙RC	강관호 → 문한목
아산둔포RC	조용식 → 김수성
초원RC	이창식 → 클럽종료
13지역부총재	조정호 → 홍순철

라이온스클럽 이 · 취임

1지대위원장	홍순철 → 이관우	14지역부총재	김규태 → 강철식
2지대위원장	이산규 → 박명수	1지대위원장	이명규 → 김진구
온양LC	최성원 → 정한수	2지대위원장	강철식 → 박헌준
둔포LC	이관우 → 유근종	온주LC	김진구 → 홍청훈
신창LC	최광현 → 김범수	선장LC	정해곤 → 오장근
뉴배방LC	윤철구 → 이종민	온양온천LC	이가현 → 민경일
온양천도LC	박명수 → 조성영	도고LC	최원목 → 고종민
아산LC	정병관 → 김성환	배방LC	박헌준 → 이원희